

평전 전문저자 최석태 인터뷰

평전을 쓰는 데 드는 품이 평전의 가치를 좌우한다. 평전출간이 활발한 요즘, 평전집필에 전념을 보인 사람이 있다. 《이중섭 평전》을 낸 미술사학자 최석태(46) 씨다. 평전집필 전 그와 단 몇 시간이라도 얘기를 나눠본다면, 평전이 단지 한 인물에 대한 기록만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중섭 평전》을 기획할 당시, 화가 이중섭에 관한 책은 전무했습니다. 평전형식을 띤 시인 고은의 《화가 이중섭》이 유일했지요. 국내에 발표된 논문도 단 몇 편에 불과했습니다. 시대와의 불화도 그랬지만, 그 담론들도 정상이 아니라 쓸쓸했습니다. 미술사학자로서 이중섭의 생을 제대로 밝혀 왜곡과 편견으로 점철된 담론들을 극복해 보고 싶었지

요. 미술담론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평전집필은 의욕만큼 간단치 않았다. 밥벌이 수단이던 <계간미술> 기자직을 접고 미술사의 일류—流를 조명하겠다는 최석태 씨의 열정은 그로부터 5년 후인 2000년, 《이중섭 평전》이란 이름으로 매듭지어졌다. 이중섭의 조카 이영진 씨를 수십 차례 만나 정보를 얻었으며, 이중섭의 대학 동기인 김병기 씨가 귀국할 때마다 만나 생생한 증언을 채집했다. 국내외 근대미술사를 다룬 책을 독파한 것은 물론, 논문 전시평 회고글 인터뷰기사 화집 전시도록 등 이중섭 이름 석 자가 들어간 것은 빠뜨리지 않고 찾아보았다. 그의 말대로 “대상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평전 저자는 업자가 아니다”,
‘평전’의 진정성을 위한 일침



“이중섭은 일반인들에게 대단한 화가로 인식되지만, 미술가들에게는 매스컴이 만든 우상으로 과소평가 받고 있습니다. 월남越南 화가라 근대 화단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평전을 기획할 때만 해도 일류를 조명하겠다는 생각 뿐, 이중섭에게 큰 매력을 못 느꼈는데, 자료조사중에 넘어 빠져 버릴 만큼 끌림을 느꼈습니다. 연보를 참고해 마련된 정보를 나열할 수 없었던 것은 왜곡과 편견에 맞설 많은 팩트Fact를 얻은 까닭입니다. 그간 존재하던 이중섭에 대한 담론들을 읽고, 처음부터 다시 쓴다는 마음으로 집필했습니다. 평전이라는 이름을 내건 만큼, 그것이 옳은 자세라 여겼지요.”

자료조사가 철저했는지라 왜곡과 편견을 넘어서는 일은 간단했다. 이중섭 작품의 발표연도를 밝혀 근대사의 정확한 위치에 걸어둔 그는 예술지상주의자라는 이중섭에 대한 평가를 보기 좋게 전복한다. 전통적인 문화목록을 탐색해 작

품의 근간을 마련했던 이중섭은 당대 누구보다 시대를 실감하며 살았던, 민족주의 화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 이중섭의 작품 <부부>를 그는 <봉황>으로 새롭게 명명하며 기존과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데, 공중에서 정겹게 어울리고 있는 ‘봉’과 ‘황’은 실제 한쪽 날개가 결박되어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봉’과 다리조차 땅에서 떼기 힘든 처연한 ‘황’의 조우란다. 분단의 비극이 숨어 있는 작품에 정감 어린 정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유복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5살 때까지 엄연히 아버지가 존재했으며, 식민지 시절 일본여자와 결혼한 천덕꾸러기라는 평가에는 전통혼례를 갖고 ‘이남덕’이란 한국식 이름을 지어준 의식 있는 인텔리임을 드러낸다.

“찬양도 왜곡도 아닌, 진실자체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인물 업적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제도 기꺼이 맡아야 합니다. 그때야 평전은 가치를 지



합니다. 단편적으로만 알려진 이중섭의 엽서그림을 편년하면서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엽서그림을 편년하고 보니, 전통적인 서예문화를 계승하고자 했던 이중섭의 예술적 역량과 작품세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엽서 뒷면의 자필기록과 소인을 보기 위해 이중섭의 조카인 이영진 씨를 6개월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이중섭 생의 요철과 예술세계를 복원했지만, 그에게 그것은 전주前奏에 불과했다. 이중섭이 자리한 근대미술사를 더듬던 그는 우리 미술사 전반을 새롭게 고쳐 쓸 의무를 갖게 됐다. 문학에서 일찍이 극복한 이식론을 미술사에서도 극복해야 한다는 주제가 그것이다. 지금도 이중섭을 ‘서양화가’라고 명기하는데, 화가면 화가이고 유화가면 유화가지, 서양식 그림을 그린다는, 주체성을 상실한 ‘서양화가’라는 명칭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개화기 무렵 서양에 대한 관심은 유별났습니다. 오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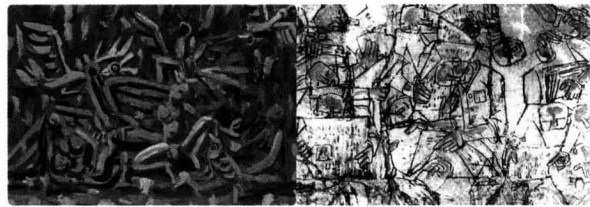


든 양식이 복원된 것이 평전이다. 그리하여 평전은 격동 몇 십 년의 다큐멘터리라 불리어도 좋다. 그는 그러나 완결된 평전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실제 인물의 자서가 아님에야, 새롭게 획득되는 사실을 끊임없이 찾아 보정하고 보충해야 할, 영원한 미완의 작업이 평전이라는 것이다. 이중섭만 해도 그렇다. 초기 작품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을 뿐더러, 북한에서의 생활과 그곳에서 완성시킨 작품도 제대로 내보이지 못했다고 그는 솔직하게 대답한다.

“전업으로 치열하게 매달리지 않고 업자정신으로 평전집필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사 정도로 쓰인 평전을 읽고 실망한 독자가 다시 평전을 읽게 될까요? 평전집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받춰져야 합니다. 화가 박수근과 이쾌대, 조각가 권진규 등의 평전도 작업하고 싶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평전저자간의 교류도 활발해야 합니다. 이상경 씨가 《나혜석 평전》을 집필할 때, 갖고 있던 많

하면 ‘서양쇼크’라고 부르기까지 했겠습니까? 나를 작게 보고 서양을 크게 보니, 나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태 서양에 기대고 있는 미술사의 주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이브한 형태지만 청소년용 《김홍도》를 쓰게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김홍도에서부터 우리 미술 근대성의 기원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나아가 남북한 미술사를 통합한 민족미술사 혹은 한국미술통사 집필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조동일 선생이 일찍이 한국문학통사를 정리한 바 있지만, 미술사에서는 아직 시도의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미술사학을 완벽하게 정리해 문사철文史哲學의 전범이 되겠다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 인물의 생을 통해 한 시대를 널리 보고, 그것에서 두렵으로 엮여 나오는 지상과제를 덤으로 얻는다는 데 평전 집필의 매력이 있다. 물론 평전읽기의 매력도 여기에 있다. 한 인물의 생만 복원된 것이 아니라, 인물이 살던 시대와 모



은 자료를 남겨주었습니다. 최초로 발굴한 〈모뎀된 감상기〉라는 나혜석의 글도 망설임 없이 건넸지요. 개인에게는 소중한 것지만, 자료를 꼭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서로 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전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논의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그가 들려주듯, 평전이란 이름 속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 진정성을 간과한다면 평전이란 이름의 의미는 없다. 위인전을 쓰거나 판타지를 쓰면 될 일, 진중한 이름을 폄하하지는 말 일이다. 왜곡과 편견으로 휘어진 이중섭 생애를 복원하고, 예술세계 해석의 지평을 넓힌 최석태 씨의 《이중섭 평전》은 평전을 집필하려는 모든 저자가 사료조사 전에 먼저 읽어야 할 책으로 권장할 만하다. 평전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고유영역으로 자리잡을 날이 그로 인해 가까워졌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